

제목을 통한 한시 해석의 중요성과 그 이유

구 본 현*

차 례

- | | |
|----------------------------|---------------------------|
| I. 서론 | IV. 제목의 정보를 이용한 작법·미감의 분석 |
| II. 제목에 보이는 창작 상황을 고려한 해석 | V. 결론 |
| III. 제목의 정보를 이용한 시어·의경의 분석 | |

I. 서론

일반적으로 한시 연구는 원문과 번역문을 제시한 후 텍스트의 문법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번역은 연구의 타당성과 의의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시 해석은 시어의 기능 및 의미를 파악하는 1차 해석과 詩語·意境의 선택 및 배치 방식을 분석하는 2차 해석으로 나뉜다. 해석의 대상이

* 서울대학교 강사

되는 한시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작자, 제목, 본문, 출전으로 구성되는데 대개의 경우 본문이 주요 해석 대상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본문 해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제목은 본문 다음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소재·제재, 시간적·공간적 배경, 창작의 상황과 동기, 창작 시기, 갈래 등 매우 다양하다. 하나의 제목에서 이 모든 정보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본문 해석이 정확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시 연구에 있어서 제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제목을 번역하지 않거나 본문 해석의 결과가 제목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현재 간행되는 한문학 관련 학술지를 보면 각주를 통해 원문만 인용할 뿐 제목의 번역과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의 서술에서 제목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나 제목과 연계하여 텍스트의 문학적 가치를 해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시 번역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杜詩諺解』는 제목을 제외한 본문만을 번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제작된 한시 諺解書들은 본문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¹⁾ 이러한 변화는 본문 해석에 있어서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목의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한층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제목의 번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²⁾

육하원칙에 따라 한시를 해석할 때 ‘누가’는 작자를, ‘무엇’은 대개 본문을 가리킨다. 창작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와 ‘어디서’는 본문에 나타나기도 하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본문 해석에 큰 도움이 되는 창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1) 李鍾默,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藏書閣』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참조.

2) 成範重, 「한시 연구와 한시 번역」,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2003, 참조.

다. 이것이 제목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한편 ‘왜’와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경우, 즉 텍스트의 문학적 가치를 해석할 때에는 본문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작품의 미감과 주제를 해석할 단서를 제목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 또한 의외로 많다. 제목의 異同에 따라 시어와 의경이 달라지는 사례가 검토된 바 있거니와³⁾ 1차 해석뿐만 아니라 2차 해석에 있어서도 제목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한시를 읽을 때에는 해석의 관건이 되는 글자, 어휘, 구절 등을 찾는 일이 중요한데⁴⁾ 이들은 때때로 본문이 아닌 제목 속에 숨어있다. 이것이 제목에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된다.

작품 한 수 한 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축적되어야 한시 연구의 기반이 굳건해진다.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텍스트의 本意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목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제목을 통한 본문 해석의 중요성을 여러 양상으로 나누어 실증하려는 것이다. 먼저 창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1차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제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창작 동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목을 통해 시어·의경의 선택과 배치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통해 주제와 작법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을 실증하기로 한다.⁵⁾

3) 閔丙秀, 『韓國漢詩代表作評說』, 太學社, 2000, 23~28쪽.

4) 송준호, 「해석과 번역을 위한 몇 가지 제요」, 『韓國名家漢詩選』, 문헌과해석사, 1991, 19~47쪽.

5) 제목의 정보를 해석에 잘 활용한 예로 『國朝詩冊』을 번역·해설한 강석중·강혜선·안대회·이종목의 『허균이 가려 뽑은 조선시대의 한시』(문헌과해석사, 1999)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목에 주목한 해석의 예가 많지 않고 내용이 간략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는 일반 독자를 위한 ‘선집의 번역서’라는 성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 제목에 보이는 창작 상황을 고려한 해석

한문은 문장성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언어이다. 한국어처럼 조사나 어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처럼 문장성분에 따라 어휘의 형태가 바뀌지도 않는다. 문장성분뿐만 아니라 시제 또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문을 해석할 때에는 어휘의 뜻뿐만 아니라 앞뒤 문장과의 관계 및 문장 전체의 맥락까지 주의해서 따져봐야 한다.

한문은 또한 의사소통의 주요 도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과 동기 아래 창작된 경우 고유명사의 뜻과 用事의 의도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 誤讀에 빠지기 쉽다. 한시의 경우에는 시적 변용까지 더해지므로 해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따라서 창작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제목이다. 모든 제목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⁶⁾ 제목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온전한 해석을 기대할 수 없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창작의 상황을 알 길이 없는 독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된다. 창작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데도 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충분한 정보 없이 해석을 강행한다면 엉뚱한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상황에서 지어졌으나 제목의 정보가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제목의 중요성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목과 본문만으로는 창작의 상황과 동기를 알기 어려운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달 아가씨 어느 해에 광한전에서 내려왔기에

6) 본문의 일부를 취한 제목이나 卽事, 偶吟, 漫興, 述懷 등의 관습적인 제목들은 본문의 해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수놓은 저고리에 아직도 계수나무 향기가 남아 있다.
 시름에 玉枕을 베니 春心이 알고
 꿈결에 瑤臺에 드니 새벽빛이 다하네.
 남녘의 술을 잔 가득 부어 기울였는데
 축 땅의 거문고 줄 끊어져 외로운 난새를 원망하네.
 美男子는 신선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질없이 아침 구름과 저녁 비만 바라보네.
 月姊何年下廣寒, 繡襦猶着桂香殘
 愁憑玉枕春心淺, 夢入瑤臺曉色闌
 蠻酒杯深傾綠蟻, 蜀琴絃斷怨孤鸞
 嬌郎不解眞仙子, 謾作朝雲暮雨看.⁷⁾

李安訥(1571~1637)이 지은 이 시의 제목은 “許郎中の 운에 차운하여 秋香에게 주고 여러 공께 함께 짓기를 청하다”(次許郎中韻, 贈秋香, 請諸公同賦)인데 그 아래 “추향의 자는 계영으로 장성의 이름난 기생이다”(香, 字桂英, 長城名姝)라는 주가 붙어 있다. 제목과 주를 종합하면 이안눌이 ‘許郎中’의 시에 次韻하여 장성의 기생인 추향에게 시를 지어주고 동석한 이들에게 차운을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운시는 대개 原韻詩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짓게 마련이므로 ‘許郎中’의 시를 알면 해석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許郎中’의 정체와 원운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⁸⁾ 따라서 제목에 보이는 ‘秋香’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위의 제목과 주석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7) 李安訥, <次許郎中韻, 贈秋香, 請諸公同賦>(4수 중 1수), 『東岳集』(한국문집총간 78), 續集, 549d~550a쪽. 이하 한국고전번역원에서 標點·影印한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8) ‘許郎中’은 이안눌, 조위한, 양형우 등과 절친하였던 許筠으로 보인다. 이안눌의 시는 1599년 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허균이 兵曹正郎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惺所覆韻稿』에는 이안눌의 시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제목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문의 해석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였기에 추향을 嫦娥에 견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향의 내력과 행적을 알 수 없으므로 향아가 달에서 내려온 이유, 수심에 찬 이유 등을 알 수가 없다. 頸聯에 보이는 ‘蠻酒’의 의미, 司馬相如의 전고를 쓴 이유 등도 알기가 어렵다.

尾聯 역시 마찬가지로 ‘嬌郎’의 의미와 巫山神女의 전고를 用事한 의도가 불분명하다. ‘嬌郎’은 남의 집 사위를 높이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문맥이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말뜻 그대로 ‘잘생긴 사내’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작자와 제목을 보면 남자라고는 이안눌과 ‘許郎中’뿐이므로 ‘嬌郎’은 작자인 이안눌이거나 ‘許郎中’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정보만으로 해석을 강행하면 이 시의 주제를 ‘외로운 처지에 놓인 아리따운 기생 추향에게 던지는 미남자의 사랑고백’으로 보기 쉽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추향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다행히 이안눌의 친구인 趙緯韓(1567~1649)의 문집에서 추향과 연관된 시를 찾을 수 있다. 조위한 시의 韻字가 이안눌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동석에서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상황 아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안눌과 달리 조위한은 본문보다도 긴 제목을 붙여 창작의 동기와 상황을 자세하게 밝혀 놓았다.

남쪽 지방의 이름난 기생인 추향은 거문고와 노래를 잘하였다. 난리에서 도망쳐 걸어가다가 길에서 梁亨遇를 만나 하루의 즐거움을 얻었다. 용산에 이르러 추향은 國色으로 京城에 (이름을) 드날려 한 왕자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양형우는 감히 그녀의 문을 넘보지 못하고 ‘神女夢中’의 구절을 지었다. 그 친구 중에 추향의 집 벽에 장난으로 시 한 수를 쓴 이가 있었는데 내가 그에 차운하고 아울러 이안눌과 任鏞에게 화답을 명하였다.⁹⁾

9) 趙緯韓, <南中名姝秋香, 善琴歌. 逃亂徒步, 梁友子發, 路中相遇, 遂得一日之權. 及

조위한의 시 제목을 통해 추향의 내력과 양형우와의 인연을 알 수 있으므로 조위한의 시뿐만 아니라 이안눌의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 위 제목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안눌의 시를 해석해보자.

首聯은 추향을 향아에 비긴 구절이다. ‘桂香’은 달에 桂樹가 있다는 전설과 추향의 자가 桂英이라는 사실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교묘한 시어이다. 아름다운 용모뿐만 아니라 이름에서도 공통점이 있기에 추향을 향아에 견준 것이다.

또한 향아와 추향은 연인과 결별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향아는 남편인 羿를 배반한 여인이다. 남편인 羿가 西王母한테서 구해온 不死藥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향아의 행적은 양형우의 사랑 대신 왕자의 총애를 선택한 추향의 행적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향아가 다시 지상에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頷聯에 보이는 ‘春心’이 실마리가 된다. ‘春心’은 春景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의미하므로 이 구절은 시름 때문에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春心’은 남녀간의 戀情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니 연정으로 인한 시름이 조금이나마 없어진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이 시의 제재가 사랑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남편인 羿를 잊지 못해 향아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추향이 여전히 옛 연인인 양형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양형우는 庶出이었기에 왕자의 여인을 넘볼 수 없었다. 추향 역시 세간의 이목 때문에 양형우와의 사랑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였다. 옛 연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추향은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다. 꿈속에서

來龍山，秋娘以國色擅京城，有王子方寵幸。子發不敢窺其門，乃作神女夢中’之句。其友有戲題一律于秋娘壁上者，余次其韻，並命東岳、鳴皇和焉，「玄谷集」(충간 73), 권5, 214c쪽.

나마 양형우와의 사랑을 추억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새벽이 되어 잠이 깨면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현실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頸聯은 추향과 양형우의 과거와 현재를 읊은 구절이다. 양형우는 南原 사람이고 추향은 장성 사람이며 둘이 처음 만난 곳도 남쪽이었기에 '남쪽 지방의 술'(蠻酒)이라는 시어를 쓴 것이다. 사마상여가 <鳳求凰>을 연주하여 卓文君과 인연을 맺은 전고는 양형우가 시를 지어주고 추향이 거문고와 노래로 화답한 것을 의미한다. 양형우와 추향이 각각 시와 거문고로 유명하였기에 이와 유사한 전고를 이용한 것이다.

둘의 만남은 잠깐이어서 곧 이별을 하게 되고 한양에 머물게 된 추향은 왕자의 총애를 얻게 된다. 양형우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으나 부친인 梁大樸과 동생인 梁慶遇가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이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짝을 잃은 처지를 가리키는 '孤鸞'은 이별을 주제로 한 琴曲의 이름이기도 하여 거문고 연주에 뛰어났던 추향의 행적과도 절묘하게 부합한다. 즉 경련은 이별의 상심과 재결합의 소망을 함께 말한 구절이다.¹⁰⁾

尾聯에 보이는 '嬌郎'은 이안눌이나 '許郎中'이 아닌 양형우를 가리킨다. 추향을 만나지 못하는 양형우가 '神女夢中'의 시를 지었다는 기록에서 미련의 주체가 양형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안눌의 시는 세간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추향을 만나지 못하는 양형우의 행동을 조롱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양형우에 대한 추향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¹¹⁾ 양형우 역시 꿈속에

10) 이 구절은 첩을 얻으려는 사마상여의 마음을 <白頭吟>으로 돌려세운 탁문군의 고사와도 연관된다. “相如聘茂陵人女爲妾，卓文君作<白頭吟>以自絕，相如乃止。”(『西京雜記』, 권3)

11) 조위한의 시를 보면 추향이 여전히 양형우를 그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風塵南國舊盟寒，旅泊西江翠黛殘。琴上<落梅>彈更罷，枕邊行雨夢初闌。緜山此夜迎王子，海曲三春怨伯鸞。唯有篋中神女句，避人和淚就燈看。”

서라도 추향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둘의 사랑을 확인한 이안눌의 입장에서서는 부질없이 추향의 주변만을 맴도는 양형우의 행동이 딱하면서도 우스울 수밖에 없었다. 서출과 기생의 사랑이라는 배경 때문에 희작의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담고 있다. 마음만 졸이지 말고 야반도주를 해서라도 사랑을 이루라는 충고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의 상황과 동기가 특별할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제목이 제공하는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해석의 근거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제목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제목이 길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보를 더 찾아내야 하는지 해석의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석에 필요한 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목이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텅 빈 산에 나뭇잎 지고 비마저 쓸쓸한데
 정승의 풍류가 이에 적막하구나.
 슬프구나, 한 잔을 다시 바치기 어려우니
 지난날의 노래가 곧 오늘 일이 되었네.
 空山木落雨蕭蕭，相國風流此寂寥。
 惆悵一杯難更進，昔年歌曲卽今朝²⁾

權輿(1569~1612)이 지은 이 시의 제목은 “정송강의 묘를 지날 때 느끼미가 있어(過鄭松江墓有感)”이다. 제목이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해 보이지 않지만 ‘정송강’이라는 말에서 어떠한 정보가 더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시를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松江 鄭澈(1563~

12) 權輿, <過鄭松江墓有感>, 『石洲集』(총간 75), 권7, 61c쪽. 原註에 “公嘗有短歌, 道死後誰勸一杯酒之意.”라 하였다.

1593)의 행적과 권필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전구와 결구의 의경이 정철의 <將進酒詞>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죽고 나면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이 <장진주사>의 주제이다. 정철의 勸酒歌가 예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정철의 말을 연상하여 그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그런데 ‘정송강’이라는 정보는 전구와 결구뿐만 아니라 기구와 승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雨蕭蕭’→‘木落’→‘空山’의 인과관계를 ‘空山’→‘木落’→‘雨蕭蕭’로 도치시킨 기구는 ‘역설적인 상황의 제시’로 이루어진 결구과 열고 닫는 구조를 이룬다. 도치와 역설이 開闔을 이루는 것이다.

기구의 의경은 단순한 경물 묘사가 아니라 시인의 감정이 투영된 작품의 주제에 해당한다. 이는 정철의 <장진주사>에 보이는 “누른 희 흰 달 ㄴ는 비 쇼쇼리 바람 불 제”의 의경과 <秋夜> 시에 보이는 “蕭蕭落葉聲, 錯認爲疏雨”의 의경을 결합한 것이다. 즉 정철의 시에서 빌려온 의경을 開闔의 형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승구의 ‘風流’ 또한 정철의 생애를 집약한 시어이다. 정철은 권필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찌 보면 둘은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두 사람 모두 평생 詩酒를 사랑하였고¹³⁾ 정치적 입장 또한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정철은 조정의 논의를 주도한 西人의 영수였고 권필은 士論을 이끈 재야의 선비였다.¹⁴⁾ 정계에서 쫓겨난 정철이 강화도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을 때 권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권필은

13) 정철의 과음을 걱정한 宣祖가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라며 銀盞을 하사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은잔을 방짜처럼 두드려 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권필 또한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였다. “性酷嗜酒, 酒後語益放.”(張維, <『石洲集』序>, 『石洲集』(충간 75), 3c쪽)

14) “時朝議則松江主之, 士論出於公及石洲, 以布衣而有輕重一世之望.”(任選, <鳴皇任先生行狀>, 『鳴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10, 112쪽)

각 구절에 정철의 자취를 남겨놓음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Ⅲ. 제목의 정보를 이용한 시어·의경의 분석

앞서 제시한 권필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목은 단순히 어휘와 문장 차원의 해석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시어와 의경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배치하였는가를 따져볼 때에도 제목은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학작품에 있어서 주제가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시도 마찬가지여서 시인의 창작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시는 뜻을 직접 서술하는 것을 꺼려 사물, 사건, 현상 등에 기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휘와 문장의 사전적인 의미를 해석한 후에는 궁극적인 창작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시어를 어떻게 배치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제목을 정확히 읽기만 하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듯이¹⁵⁾ 작품의 구체적인 주제를 제목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鄭以棼(1347~1434)의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2월이 다하고 3월이 오려 하는데
 1년의 봄빛이 꿈속에 도네.
 천금으로도 아름다운 계절을 살 수 없는데
 뉘 집에 술이 익고 꽃이 활짝 피었는가?
 二月將闌三月來，一年春色夢中回。
 千金尙未買佳節，酒熟誰家花正開。¹⁶⁾

15) 金相洪, 『漢詩의 理論』, 高麗大學校 出版部, 1997, 172~183쪽.

이 시는 結句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結句의 ‘誰家’를 특정 인물의 집이 아닌 凡稱으로 해석하면 “누군가의 집에는 술이 익고 꽃이 피었겠지”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晩春佳節을 즐기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럴 수 없는 현실적 처지의 괴리로 인한 自歎이 이 시의 주제가 된다. 봄이 다 지나려 하는데도 꿈속에서나 봄 경치를 즐길 뿐이라는 내용을 보면 시인이 賞春의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차운하여 이웃고를 사또인 정백형에게 주다”(次贈隣倅鄭百亨)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 시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려면 정백형¹⁸⁾이 먼저 시를 짓고 이에 정이오가 화답하였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 시는 정백형과 同席한 상태에서 지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詩酒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지은 것이라면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시를 지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는 정백형이 지어 보낸 시에 정이오가 화답하여 부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에 보이는 ‘誰家’는 정백형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정이오는 봄의 마지막인 3월이 다가오는데도 봄놀이를 한 번도 못한 처지이다. 나들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에 꿈속에서나 봄빛을 구경하던 터에 정백형이 ‘우리 집에 술이 익고 꽃이 한창이니 바쁜 줄은 알지만 시간을 내어 한 번 놀러오게나’라는 시를 지어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이오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봄날의 흥취를 어찌 바쁘다는 핑계로 마다하겠느냐는 뜻을 담아 ‘그러마’ 하고 승낙의 뜻을 보낸 것

16) 鄭以吾, <次贈隣倅鄭百亨>, 『郊隱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卷上, 28쪽.

17) 承句는 저무는 봄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杜甫의 <絶句漫興>(9수 중 4수)에 보이는 “二月已破三月來, 漸老逢春能幾回”를 點化한 것이다.

18) 『東文選』, 『靑丘風雅』, 『箕雅』, 『大東詩選』에는 ‘鄭百容’으로, 『國朝詩冊』에는 ‘鄭伯亨’으로 되어 있으나 누구인지는 미상이다.

이다. 저무는 봄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편적인 공감을 자아내기에 唐詩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¹⁹⁾ ‘답장’이라는 창작의 상황에 따라 이 시의 주제는 ‘상대방의 정겨운 초대에 응함’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이오의 시는 제목을 통해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시는 예술의 한 갈래이므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시인은 하나의 字句를 가지고도 고민을 거듭하여 시를 짓기 때문에 어떠한 시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하였느냐에 대한 해석, 즉 문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시어의 선택과 의경의 배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제목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清平山の 모습은 關中 땅을 대표하는데
아래로는 소양강이 있어 한강과 통한다네.
한 필의 말로 동대문을 재빨리 달려 나왔는데
뚝에 반쯤 바람 받아 봄 강을 거슬러 오르겠지.
다른 이 군수로 나가는 걸 보내기만 하니 귀신이 다투어 웃고
집을 묻고 받을 구하러 하나 주머니가 오래도록 텅 비었네.
당시의 勾漏 현령에게 말하노니
늙은 얼굴에 바를 丹砂 좀 빌려주게나.
清平山色表關中，下有昭陽江漢通。
馳出東門一匹馬，泝洄春水半帆風。
送人作郡鬼爭笑，問舍求田囊久空。
爲語當時勾漏令，衰顏須借點砂紅²⁰⁾

金萬重이 조선의 칠언율시 가운데 최고의 하나로 칭송한 黃廷彧(1532

19) “國初之業，鄭郊隱、李雙梅最善。鄭之(…)作，不減唐人情處。”(許筠, 『惺叟詩話』, 『惺所覆瓿藁』(총간 74), 권25(說部四), 359d쪽)

20) 黃廷彧, <送沈公直 忠謙赴春川二首>(2수 중 1수), 『芝川集』(총간 41), 권2, 438c 쪽.

~1607)의 시이다.²¹⁾ 제목을 풀이하면 “공직 심충겸이 춘천에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다”(送沈公直 忠謙赴春川)이다. 제목에 보이는 ‘심충겸’과 ‘춘천’에서 시를 지은 시기와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시어와 의경의 의미를 해석할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沈忠謙(1545~1594)이 春川都護府使에 부임한 1582년 봄이 이 시의 창작 시기가 된다.²²⁾ 西人에 속한 황정욱과 심충겸은 조정과 문단의 선 후배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1580년 진주목사로 부임하는 길에 병을 이유로 허락 없이 집으로 돌아가 파직을 당한 황정욱은 1582년 봄에 李珣의 進達에 힘입어 左通禮에 복귀하였다.²³⁾ 본문에 ‘春’이라 하였고 황정욱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정에 복귀하기 전, 永平(지금의 抱川)의 別業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영평은 춘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므로 심충겸이 부임 도중에 황정욱을 방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首聯은 청평산과 소양강 등 춘천의 풍광을 소개한 구절이다. 춘천은 예부터 絶景으로 유명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부임지였다. 심충겸이 좋은 곳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춘천 지역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 수련이다.

頌聯은 심충겸의 행차에 대한 황정욱의 상상에 해당한다. 부사로 부임

21) “間嘗閱本朝諸公詩，僭謂五言絕當以李蘓谷‘桐花夜烟落’爲第一，七言絕鄭東溟‘章華高出白雲間’爲第一，五言律‘世廟崇西竺’第一。七言律，傑作頗多，尤難取捨，而當於黃芝川‘清平山色表關東’、權石洲‘江上鳴聞角聲’、李東岳‘崔顯題詩黃鶴樓’數詩中求之。” 金萬重, 『西浦漫筆』, 경인문화사, 1974, 622쪽.

22) “壬午，出爲春川府使。政尙廉平，一境大治。”(金鑾, <有明 朝鮮國贈忠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貳師、青松君、行資憲大夫、兵曹判書兼左副賓客沈公諡狀>), 『北渚先生集』(총간 79), 권9, 113c쪽)

23) “庚辰夏，因逸囚事，罷還永平別業(…)又出刺晉州，扶曳登道，未得達，辭病還家，言官以此論罷。壬午春，李栗谷建白筵中曰：‘黃某頃以實病，未及赴官，准期不敘，其文翰在當今罕比，可惜。’幸上收用，卽命敘復，除左通禮。”(黃赫, <行狀>, 『芝川集』(총간 41), 附錄上, 481a·b쪽)

하는 길이니 ‘五馬’라는 시어가 더 적절해 보이지만 춘천 부임을 기뻐하는 심충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一匹馬’라 하였다. 복잡한 한양을 벗어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부임하는 셈이니 기쁜 마음에 혼자서 급히 말을 달려 동대문을 나섰으리라고 추측한 것이다.²⁴⁾

한양을 벗어나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소양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좋은 경치를 마음껏 구경하라는 충고가 對句의 내용이다. ‘半帆風’은 江神이 하룻밤 만에 王勃을 수백 리 떨어진 滕王閣에 데려다 준 ‘一帆風’의 고사를 변용한 시어이다. 돛에 가득 바람을 싣게 되면 속도가 너무 빨라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할 수 없으므로 적당한 바람으로 배를 몰아가라는 뜻이다.

頸聯은 심충겸과 대조되는 황정욱 자신의 처지를 읊은 구절이다. 파직을 당한 입장에서 보자니 좋은 지역의 목민관으로 나아가는 심충겸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박복한 자신에게는 심충겸과 같은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는 것이 出句의 뜻이며²⁵⁾ 늘그막을 대비해 재물이라도 모았으면 좋으련만 그마저 여의치 않다는 한탄이 對句의 내용이다.²⁶⁾

24) 춘천에의 부임이 좌천의 성격이므로 ‘五馬’가 아닌 ‘一匹’이라 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시어와 의경을 고려할 때 부임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李珣도 심충겸을 전송하며 축하와 부러움의 뜻을 담았다. “閉戶養清羸，謝客疏人事。此時間我弟，出作餐砂吏。悄悄病後思，悠悠別離意。春州擅佳名，山水饒清致。江洲草色遠，巖壑雲姿媚。鈴齋簿牒間，幾叩清平寺。自嗟絆風塵，空懷遠遊志。何當入禪扃，共對蒲團睡。”(李珣，〈送沈公直忠謙作宰春川〉，『栗谷先生全書』(충간 44)，권2，39d쪽)

25) 『南史·劉損傳』에 “損同郡宗人有劉伯龍者，少而貧薄，及長，歷位尚書左丞、少府、武陵太守，貧窶尤甚。常在家慨然，召左右將營十一之方，忽見一鬼在傍撫掌大笑。伯龍歎曰：‘貧窮固有命，乃復爲鬼所笑也。’遂止。”라 하였다.

26) 『三國志·魏志·陳登傳』에 “陳登者，字元龍，在廣陵有威名。又掎角呂布有功，加伏波將軍，年三十九卒。後許汜與劉備並在荊州牧劉表坐，表與備共論天下人，汜曰：‘陳元龍湖海之士，豪氣不除。’備謂表曰：‘許君論是非？’表曰：‘欲言非，此君爲善士，不宜虛言；欲言是，元龍名重天下。’備問汜：‘君言豪，寧有事邪？’汜曰：‘昔遭亂過下邳，見元龍，元龍無客主之意，久不相與語，自上大床臥，使客臥下床。’備曰：‘君有國士之名，今天下大亂，帝主失所，望君憂國忘家，有救世之意，而君求田問舍，言無

尾聯은 출세와 부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나니 건강과 장수의 욕심이 남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葛洪²⁷⁾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여 해석이 쉽지 않다. 심충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춘천에 있을 隱者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춘천에 가서 단사를 많이 모아 일부분을 보내달라”는 뜻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춘천에 단약을 만드는 이가 반드시 있을 테니 조금 얻어서 나에게 보내달라”는 뜻이 된다. 어느 쪽이든 혼자서만 젊어지지 말고 자신까지도 신경 써달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해석은 부임지가 춘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춘천은 예부터 賢人들의 은거지로 유명한 고장이다. 고려 때에는 李資賢이 벼슬에서 물러나 청평산에서 禪學을 닦았거니와 조선에 들어서서는 道脈의 중흥자인 金時習이 춘천에 머물렀다.²⁹⁾ 황정욱은 脫俗鄉이라는 춘천의 이미지를 갈홍의 전고와 결합함으로써 심충겸을 吏隱으로 칭송하는 동시에 전송의 뜻을 아우른 것이다.

황정욱의 시는 창작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어를 선택하고 의경을 정밀하게 배치하였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제목을 통해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시어, 의경, 주제가 제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를 하나 더 보기로 하자. 다음은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도 실려

可采，是元龍所諱也，何緣當與君語？如小人，欲臥百尺樓上，臥君於地，何但上下床之間邪？表大笑。備因言曰：‘若元龍文武膽志，當求之於古耳，造次難得比也。’”라 하였다.

- 27) 『晉書·葛洪傳』에 “以年老，欲鍊丹以祈遐壽，聞交趾出丹，求爲句漏令。帝以資高，不許。洪曰：‘非欲爲榮，以有丹耳。’帝從之。”라 하였다.
- 28) 경련과 미련의 주체를 심충겸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황정욱이 51세의 나이에다 파직을 당한 처지였다는 점, 심충겸이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황정욱을 주체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 29) 『海東傳道錄』에 따르면 김시습에게 仙道를 가르친 金孤雲과 김시습이 처음으로 만난 곳이 춘천이다.
- 30) 許筠은 『國朝詩刪』에서 수련에는 ‘極好’라는 評을, 함련에는 ‘湖、蘇無此句’라는 評을, 경련에는 ‘倔而不拘’라는 評을, 미련에는 ‘極工巧’라는 批를 달았다.

있는 李達(1539~1612)의 작품이다.

산이 흰 구름 속에 있는데
스님께서서는 흰 구름을 쓸어내지 않으시네.
나그네가 찾아오니 그제야 문이 열리는데
은 골짜기에 송화가 늙었구나.
山在白雲中, 白雲僧不掃.
客來門始開, 萬壑松花老.³¹⁾

어려운 글자도 없고 문법도 평이하므로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기구와 승구에서 ‘白雲’이라는 시어를 반복한 이유가 궁금하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글자나 시어를 반복하는 것은 엄격한 형식을 강조하는 한시에 있어서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이달이 유달리 ‘白雲’을 강조한 이유가 이 시를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전구에서 암자를 찾은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는 스님의 모습을 그린 다음, 절구에 이르러 엉뚱하게 암자 주위의 경치를 묘사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전구의 의경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으려면 등장인물과 상관이 있는 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 골짜기에 송화가 쇠었다는 의경으로 시상을 종결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제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시의 제목은 “불일암에서 인운 스님에게 주다(佛日菴, 贈因雲釋)”이다. 지리산에 있는 불일암³²⁾을 찾아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因雲이라는 스님에게 주었다는 뜻인데 스님의 法號인 ‘因雲’이 해석의 실마리가 된다.

‘因雲’은 ‘구름을 배우라’는 뜻이다. ‘雲水行脚’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름은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징으로 쓰인다. 因雲이라

31) 李達, <佛日庵, 贈因雲釋>, 『蓀谷詩集』(총간 61), 권5, 31c쪽.

32) ‘佛日’은 부처를 가리킨다. 광대한 法力으로 광대하여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부처의 행적이 大地를 비추는 태양과 같다는 뜻이다. 杜甫의 <和裴迪登新津寺寄王侍郎>에 “老夫食佛日, 隨意宿僧房.”이 보인다.

는 범명을 지냈기에 떠도는 구름을 따라 이리저리 수도의 길에 오르는 뜻이 된다. 스님이 불일암에 머물고 있는 것은 주위에 구름이 많기 때문이다. 구름이 너무 자욱하여 길을 찾기 어려우므로 손님을 위해 미리 구름을 쓸어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농담 섞인 투정을 건넨 것이 기구와 승구이다.

그러나 시인은 스님의 범호가 ‘因雲’이라는 것을 알고 구름을 쓸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아차리게 된다. 구름을 배우려는 스님이기에 구름을 쓸어낼 이유가 없다. 또한 속세의 손님을 환영할 까닭도 없기에 닫힌 문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절에 들어서서 스님과 대화를 나눈 이달은 스님의 경지가 온 골짜기에 날리는 松花처럼 老熟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³³⁾ 사람들은 송화를 따다가 茶食과 강정을 만들어 먹을 뿐이지만 스님은 송화 가루가 날려야 술방울이 열려 어린 소나무가 새로이 자라날 수 있음을 안다. 속세의 욕심을 털어버린 스님의 정신이 자유로운 구름과 노숙한 송화와도 같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된다.³⁴⁾

스님에게 준 시이기에 이달 시의 ‘白雲’은 解脫의 상징이 된다. 제목을 통해 작시의 상황을 알 수 있기에 이달이 의도한 상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한시의 전통에서 ‘白雲’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지닌다. 탈속뿐만 아니라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시에 자주 쓰이는 시어들은 대부분 관습적인 상징으로 쓰이는데 때로는 시인의 의도에 따라 상징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음에 인용하는 李承召(1422~1484)의 시에도 ‘白雲’이 등장하지만 그 상징은 이달의 시와 대조적이다. 시의 내용과 제목에 따라 상징의 내

33) 이종건,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사, 2001, 238쪽.

34) 이달은 같은 제목의 칠언율시에서 因雲을 신선처럼 묘사하였는데 이 역시 因雲의 높은 인품을 칭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鶴逕通眞界, 玄都訪紫壇. 蒼巖懸瀑瀉, 碧殿午鍾殘. 洞秘三珠樹, 囊留九轉丹. 如聞芝蓋過, 空外玉簫寒.”(李達, <佛旦菴, 贈因雲釋>, 『蓀谷詩集』(총간 61), 권3, 17d쪽)

용이 달라진 것인데 이러한 해석의 근거 역시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

흰 구름 땅에 가득 평평히 가라앉는데
 때때로 먼 산봉우리가 푸른 머리를 드러내네.
 산 뒤와 산 앞으로 절이 여럿이건만
 길을 잃었으니 어디가 총림[절]인가?
 白雲滿地欲平沈, 時見遙峯露碧尖
 山後山前多少寺, 路迷何處是叢林.³⁵⁾

“병풍에 그려진 그림에 대하여 짓다(題畫屏_靑山白雲)”라는 제목을 통해 이 시가 題畫詩임을 알 수 있다. 副題가 “靑山白雲”이므로 청산과 백운을 제재로 삼은 <靑山白雲圖>를 보고 지은 시가 된다. 내용을 보면 몸소 산속의 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림의 내용을 시인이 새롭게 변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화시인 만큼 이 시의 의경은 그림의 내용, 즉 畫面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소의 시가 어떤 <靑山白雲圖>에 題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崔叔昌의 <山水圖>가 전해지고 있어 이승소의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 그림을 이승소의 시와 비교해 보면 최숙창의 그림이 <靑山白雲圖>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산마루 같이 높은 곳에 올라보니 雲海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 기구의 내용이다. 이는 오른쪽 그림 가운데 산을 뒤덮은 구름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이따금 자욱한 구름이 걷힌 자리로 푸른 산봉우리가 보인다는 승구는 산세가 험준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의 遠景을 보면 구름 사이로 淡墨으로 처리된 봉우리들이 보인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자욱한 구름 때문에 절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림의 오른쪽 중단에 기와집 두 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35) 李承召, <題畫屏_靑山白雲>, 『三灘先生集』(총간 11), 권9, 461b쪽.



崔叔昌, <山水圖>, 15세기 후반, 絹本淡彩, 39.6×60.1cm, 日本 大和文華館 소장

절이다. 깊은 산속에 절이 아니고서는 기와집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숙창은 절 주위의 나무를 뾰족한 모양으로 그려 넣어 ‘叢

林’의 의미를 살려내었다. 왼편 중단과 오른편 하단에 보이는 나무들과 비교해보면 절 주위의 나무들을 뾰족하고 촘촘하게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최숙창은 절에 이르는 길을 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름과 강물을 과장함으로써 절에 이르는 길의 자취를 묘연하게 만들었다.³⁶⁾

이승소는 이러한 畫面의 내용을 전구와 절구에서 독특하게 해석하였다. 산 곳곳에 사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너무나 자욱하여 절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의경을 만든 것이다. 명산이기에 보찰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왕래가 잦아 산길 또한 분명해야 하는데도 구름이 시야를 가려 길조차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산과 구름이 성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청산과

36) 이승소의 시를 최숙창의 <山水圖>에 대한 제화시로 보아도 무방한 것은 대부분의 <靑山白雲圖>가 관습적인 畫法에 의한 전형적인 畫面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면 강물 위로 자욱한 구름이 산꼭대기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처럼 짙은 구름이 강물 위에 뜨는 경우는 없다. 즉 청산과 백운을 과장하여 그린 것, 나무의 모양을 구분하여 그린 것, 사찰의 모습을 그린 것 등은 최숙창의 그림을 관념적인 산수화인 <靑山白雲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崔叔昌의 그림에 대해서는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263~271쪽, 참조.

백운을 상징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사찰은 佛道를 얻는 공간이므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도에 다가가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도를 구할 수 있는 도량이 지척에 있는데도 인간이 그에 다가가지 못하는 까닭은 구름이 길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름은 佛道를 깨우치지 못하게끔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는 욕심을 상징한다.

이달의 시와 비교해 보면 이승소의 시에 보이는 ‘白雲’의 상징이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이승소의 시를 이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제목에 있다. 상징성을 지니게 마련인 관념적인 <청산 백운도>를 읊은 것이므로 이승소의 시 또한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상징을 표출한 기호체계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IV. 제목의 정보를 이용한 작법·미감의 분석

앞서 시어와 의경의 선택과 배치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제목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작법, 미감, 풍격 등이 제목과 긴밀하게 연관되기도 한다. 예컨대 악부를 모의한 시들은 대부분 <採蓮曲>, <兵車行> 등 관습적인 제목을 지니게 마련이고 주제 또한 연모의 정이나 종군의 괴로움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시어와 의경 역시 古風을 드러내기엔 적절한 것들이 선택되고 배치되며 형식과 체재 또한 古風을 따라야 한다.

다음 역시 해당 갈래에 속하는 한시들의 일반적인 작법과 제목이 긴밀하게 상관됨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의도적으로 두 허리를 합하였는데
다정하게 두 다리를 벌리네.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깊고 얕음은 그대에게 맡기리라.

有意雙腰合, 多情兩脚開.
動搖於我在, 深淺任君裁.

許楚姬(1563~1589)가 지은 것이라고 구전되는 시이다.³⁷⁾ 윤승한(1909~1950)은 이 시의 제목을 “전도가(가위노래) 刀剪歌”라 하였는데 <鉞>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가위의 생김새와 특징을 묘사하면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특정한 가위가 아닌 일반적인 가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사물을 제목으로 삼는, 즉 제제로 삼는 영물시 중에는 제목을 맞춰보라는 수수께끼와 같은 작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돌아오는 개미는 구멍을 찾기가 어렵고
돌아오는 새는 둥지를 찾기가 쉽네.
방 안에 가득해도 스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한 개뿐이더라도 속세 사람들은 무척 싫어하네.
返蟻難尋穴, 歸禽易見巢.
滿廊僧不厭, 一個俗嫌多.

晩唐의 鄭谷이 지은 시³⁸⁾로 제목은 ‘낙엽을 읊다’(詠落葉)이다. 허초희의 시와 작법이 유사한데 評者들은 이러한 작법을 ‘影略句法’이라 하였다.³⁹⁾ 그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생략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드러낸

37) 尹昇漢, <女流詩人 蘭雪軒>, 『白民』 제2권 4호(통권 제5호), 白民文化社, 1946.10, 62쪽. 여기에는 ‘搖’가 ‘腰’로 되어 있으나 “피가와 여기기는 나에게 있는 것이니”라는 번역을 보면 誤記로 보인다. 제목에 보이는 ‘刀剪歌’ 역시 ‘剪刀歌’의 誤記이다.

38) 劉義의 시로도 알려져 있다. “『茗溪漁隱』載劉義落葉詩云: ‘返蟻難尋穴, 歸禽易見巢.’ 黃巖左經臣亦有落葉詩: ‘禽巢先覺曉, 蟻穴未知霜.’ 意同而工又過之矣.”(『荊溪林下偶談』(文淵閣四庫全書本), 권1); “劉義<落葉>詩云: ‘返蟻難尋穴, 歸禽易見巢. 滿廊僧不厭, 一片俗嫌多.’ (…) 或戲謂此二詩乃落葉及柳, 謎子觀者, 試一思之, 方知其善謔也.”(『說郛』(文淵閣四庫全書本), 권48하)

39) “鄭谷詠落葉未嘗及彫零飄墜之意, 人一見之自然知爲落葉. 詩曰: ‘返蟻難尋穴, 歸

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영화, 문학, 미술 등 예술 전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낯설게 하기’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범주가 상이한 두 대상의 유사성을 연관 짓는 유추의 기능을 활용한 작법이라 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작법은 晚唐의 李商隱에서 비롯한 것으로 黃庭堅과 陳師道 등 강서시파에 이르러 영물시 작법의 하나로 성행하였다.⁴¹⁾ 영락구법을 사용하는 영물시는 당연히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사물을 제목으로 삼을 수 없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아야 한다.

이처럼 관습적인 내용과 작법이 지속적으로 계승되면서 하나의 갈래로 정착된 한시들은 동일한 성격의 제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목을 통해 작법과 미감의 일반적인 특징과 상관되는 정보만을 찾을 수 있다. 각 편의 개성이나 예술적 성과 등을 논의하려면 제목의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한 셈이다.

그런데 관습적인 제목이 아닌 경우에도 작법이나 미감이 제목과 상관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목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바뀌는 예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소나무 뿌리 위에서 책을 읽노라니

禽易見窠. 滿廊僧不厭, 一箇俗嫌多.”(『詩人玉屑』(文淵閣四庫全書本), 권3); “古今詩話」云: ‘鄭谷有<詠落葉>詩云: ‘返蟻難尋穴, 歸禽易見窠. 滿廊僧不厭, 一箇俗嫌多.’ 未嘗及彫零飄墜之意, 人一見之, 自然知爲落葉, 亦影略句法也.”(『詩林廣記』(文淵閣四庫全書本), 권7)

40) 이 때문에 이 시는 禪問答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龍池因僧問: ‘樹凋葉落時如何?’ 師曰: ‘過蟻難尋穴, 歸禽易見巢.’ (….) 龍池因僧問: ‘日落西山去, 林中事若何?’ 師曰: ‘虎行樵子徑, 鳥宿故枝頭.’”(集雲堂 編, 『宗鑑法林·大鑿下三十五世』, 권38)

41) 呂本中은 『童蒙詩訓』에서 李商隱의 <雨>, “槭槭度瓜園, 依依傍竹軒. 秋池不自冷, 風葉共成喧. 窗迥有時見, 檐高相續翻. 侵宵送雁雁, 應爲稻梁恩”에 대하여 “此不待說雨, 自然知是雨也. 後來魯直、無己諸人, 多用此體. 作詠物詩不待分明說盡, 祇仿佛形容, 便見妙處”라 하였다.

책 가운데로 솔방울이 떨어지네.
 지팡이 짚고 돌아가려는데
 산허리에 구름 기운이 하얗구나.
 讀書松根上, 卷中松子落.
 支筇欲歸去, 半嶺雲氣白.⁴²⁾

李書九(1754~1825)는 23세 때인 1776년 여름, 과거 합격에 부정이 있다는 탄핵을 받아 8년간 영평에 은거한 바 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이 시는 『葦山詩集』, 『韓客巾衍集』, 『楊齋集』 등 출전에 따라 제목과 시어가 조금씩 다르다. 이에 따라 내용뿐만 아니라 미감과 작법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한객건연집』의 경우 제목이 “白雲溪에서 다시 西岡口로 돌아와 소나무 그늘 아래 잠깐 누워 짓다”(自白雲溪復至西岡口, 少臥松陰下作)로 되어 있다.

제목에 보이는 지명들이 해석과 평가의 단서가 된다. ‘白雲溪’는 백운산에서 발원한 백운천(지금의 영평천)과 그 계곡을 가리킨다. 백운계곡을 따라 펼쳐진 永平八景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는 여행지이다.⁴³⁾ 이서구의 집은 영평현에서 동쪽으로 9리 떨어진 梁文驛 동쪽에 있었기에 백운계와도 비교적 가까웠다.⁴⁴⁾ 이서구는 마을의 남쪽에 있던 서강구⁴⁵⁾를 거쳐 백운계를 다녀온 뒤 다시 서강구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바로 앞에 서강구에서 백운계로 산책을 나가며 지은 시가 있고⁴⁶⁾ 제목에 ‘復’라 하였기 때문이다.

42) 李書九, <自白雲溪復至西岡口, 少臥松陰下作>(3수 중 3수), 『韓客巾衍集』(柳琴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4, 144쪽.

43) 朴淳(1523~1589)이 1586년에 휴가를 얻어 永平 椒井에 목욕하러 갔다가 백운계의 경치가 좋아 집을 짓고 拜鵲窩, 二養亭, 淸冷潭, 蒼玉屏 등의 이름을 지은 적이 있다.

44) “余家在永平 梁文驛東, 距白雲溪不過一牛鳴. 縣以溪山名於域中, 余所居尤瀟灑有佳趣”(李書九, <雨餘從西岡口步至白雲溪作>의 주, 위의 책, 143쪽)

45) “被酒村南去, 溪山入迥眺”(李書九, <晚憩西岡口作>의 1·2구, 위의 책, 146쪽)

46) 李書九, <雨餘從西岡口步至白雲溪作>, 위의 책, 143쪽.

이 시는 기구와 승구의 의경이 참신하지만 제목과 연관하여 보면 결구가 가장 교묘한 구절이 된다. 기구와 승구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잠깐 소나무 아래 쉬어가려 했는데 책에 몰두하다보니 한참이 지났다는 뜻이다. 제목에서는 ‘少’라 하였으나 결구의 내용과 결부하여 보면 시간이 꽤 지난 상황으로 봐야 한다. 시인 자신은 ‘잠깐’이라 생각하고 책을 편 것이지만 예기치 않게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것이 이 시의 묘미이기 때문이다.

산허리에 흰 구름이 걸려 있다는 곳은 바로 백운산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므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면 시인은 집 쪽을 바라보아야 마땅한데 그와는 반대로 백운산 쪽을 다시 쳐다본다는 것이 결구의 뜻이다. 이미 백운산 계곡을 구경하고 온 뒤이지만 그 풍광을 잊지 못해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 행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책을 읽느라 시간을 보낸 시인은 백운산에 걸린 백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중에서야 ‘어이쿠, 늦었구나’ 하고는 길을 재촉하였을 것이다. 백운계의 뛰어난 경치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시의 묘미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는 『楊齋集』(총간 270, 권1, 6b쪽)에도 실려 있는데 제목이 “초가을에 洞陰의 낡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질 무렵 시냇가를 걷다가 짓다”(早秋歸洞陰弊廬，晚步溪上作)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결구의 ‘白’이 ‘作’으로 되어 있다. 이 제목으로 내용을 해석하면 어디에서 ‘洞陰’(영평의 신라 때 이름)으로 돌아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앞서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본문의 ‘白’이 ‘作’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산허리에 구름 기운이 하얗네”라는 의경과 “산허리에 구름 기운이 일어나네”라는 의경은 의미와 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산허리에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가 올 징조라는 뜻이다.⁴⁷⁾ 따라서 술방울이 떨어

47) 白居易의 <殘暑招客>에 “雲截山腰斷，風驅雨脚回”라 하였고 陳與義의 <出山道中>에 “雨歇澹春曉，雲氣山腰流”라 하였다.

진 것 역시 비를 예고하는 바람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때가 되어서 떨어
진 것이거나 소나무에 깃들어있던 새가 날아가는 바람에 솔방울이 떨어
졌을 수도 있으나 전후의 의경을 因果로 읽을 경우 바람이 솔쩍 불어 솔
방울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보다 합당하다. 서강구에서 백운계로 나설 때
지은 시에도 비가 내렸다는 말이 보이므로 ‘雲氣作’을 비와 연관하여 해
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구의 뜻은 떨어진 솔방울에 정신을 차려 부랴부랴 돌아갈
길을 서두르는데 먹구름이 일어나 비가 내리려 한다는 뜻이다. 제목에
해가 질 무렵이라 하였으니 비오는 와중에 날까지 저문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선 낮을 놓고 책을 읽다 곤경에
처하게 된 시인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러게 서둘러 길을 나설 것이지’라
며 苦笑을 보내게 된다. 이처럼 이서구의 시는 제목과 본문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거니와 제목을 바꾸거나 글자를 하나 바꿈으로
써 해석과 미감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대상을 제재로 삼은 경우 시인은 시적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고
이를 적절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시어를 선택하여 의경을 만들어낸다.
의경의 조합에 따라 작품의 미감이 창조되므로 구체적인 대상을 제목으
로 삼은 경우 시어, 의경, 시상, 작법, 미감 등의 특징을 제목과 연관하여
해석해야 한다.

시어, 의경, 주제 등 총체적인 특징이 제목과 연관되는 좋은 예가 朴闇
(1479~1504)의 <福靈寺>이다. 박은은 黃庭堅의 시를 배워 海東江西詩
派의 門戶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⁴⁸⁾ 一字一句를 단련하여 빈틈없는 의
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동강서시파의 특징인데 박은의 <福靈寺>는 시
적 대상인 ‘복령사’의 특징과 의미에 따라 시어와 의경을 치밀하게 제

48) “容齋、挹翠，少時齊名，而容之仰翠，有若不可企及。使之天假其年，則其見重華使，不但容齋而已。或云：‘國初以來專尙東坡，而挹翠忽學山谷，故儕流皆屈服’云，此說近是。其詩中：‘春陰欲雨鳥相語，老樹無情風自哀’、‘天應於我賦窮相，菊亦與人無好顏’等句，皆似黃，然窮甚，似難達到。” 南龍翼，『壺谷詩話』。

조·안배한 작품이다.

절은 문득 신라 적 오랜 것이거니
 千佛 모두가 西竺에서 온 것이라네.
 먼 옛날 神人은 大隗를 찾지 못하였는데
 지금 福地는 天台山과 비슷하구나.
 봄날 먹구름이 비를 내리려 하자 새가 서로 지저귀고
 늙은 나무 무정하여 바람만 절로 슬프구나.
 세상만사 한바탕 웃음에 부칠 것도 못 되나니
 청산도 세월을 겪으면 뜬 먼지에 불과하다네.
 伽藍却是新羅舊, 千佛皆從西竺來
 終古神人迷大隗, 至今福地似天台.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
 萬事不堪供一笑, 青山閱世只浮埃⁴⁹⁾

1502년 봄에 李荇, 南袞 등과 개성 일대를 노닐 때 지은 시이다. 이들은 이때의 시를 모아 『天磨錄』을 묶은 바 있다. 박은 일행이 滿月臺를 지나 북령사에 들렀을 때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데다 바람에 우레까지 들이치는 날씨였다.⁵⁰⁾ 이 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과 ‘福靈寺’라는 시적 대상의 의미에 따라 각 구절의 시어와 의경을 치밀하게 안배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북령사의 내력과 모습을 소개한 수련은 등람과 기행의 한시에 자주 사용되는 ‘破題’에 해당한다. 出句의 ‘却是’는 천불상이 모두 인도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북령사가 오래된 절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시어이다. 북령사에는 元나라에서 들여온 十六羅漢像도 있었는데⁵¹⁾ 천불상과 더불어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

49) 朴聞, <福靈寺>, 『挹翠軒遺稿』(총간 21), 권3, 41b쪽.

50) “曉過滿月臺, 宿雲醞陰雨. 踏青未赴約, 坐使佳期誤. (….) 福靈新羅寺, 古木產蛇蠍. 風雷時一掀, 洞壑助威怒. 像說自月支, 香火幾朝暮. 福地斯最勝, 山靈解呵護.”(朴聞, <宿金藏窟>, 『挹翠軒遺稿』(총간 21), 권1, 17a쪽)

아냈으리라 생각된다. 여느 사찰과는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복령사는 신령스러운 祈福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복령사의 관음보살상에 祈子致誠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²⁾

頡聯은 제목에 보이는 ‘福’과 ‘靈’을 취하여 出句와 對句의 의경을 만든 부분이다.⁵³⁾ 黃帝가 大隗라는 신을 만나러 가다가 길을 잃은 고사⁵⁴⁾를 쓴 것이므로 出句의 ‘神人’은 神仙이라기보다는 黃帝와 그 신하들을 가리킨다. 제목의 ‘靈’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영험한 존재라는 뜻의 ‘神人’과 연관된 고사를 끌어다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령사를 ‘福地’라 표현한 頡聯의 대구는 ‘福’을 잃은 것에 해당한다.

황제는 대외를 찾지 못하였으나 시인 자신은 佛道를 마주하는 복을 얻었다는 것이 頡聯의 뜻이다. 治天下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具茨山은 전설에 불과하지만 속세에서 벗어난 천태산은 이곳 복령사처럼 실재한다는 것이다. 천태산에서 仙人을 만나 속세를 잊은 이들⁵⁵⁾처럼 시인 자

51) “至福靈寺，佛殿有十六羅漢，迺元人所塑，精巧無比”(蔡壽，〈遊松都錄〉，『懶齋集』(총간 15)，권1，375a쪽)；“入福靈寺，幽靜可愛。殿有十六羅漢塑像，制作絕妙，酷似天台休沐之狀”(俞好仁，〈遊松都錄〉，『潘谿集』(총간 15)，권7，184a쪽)

52) 寶鑑國師 混丘와 權溥가 祈子致誠으로 태어난 인물들이다. 李齊賢，〈有元 高麗國 曹溪宗 慈氏山 瑩源寺 寶鑑國師碑銘〉，『益齋亂稿』(총간 2)，권7，561d~563a쪽；李齊賢，〈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脩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謚文正公 權公墓誌銘〉，같은 책，566a~567b쪽.

53) 이종목, 앞의 책, 1995, 216쪽.

54) “黃帝將見大隗乎具茨之山，方明爲御，昌寓驂乘，張若、謔朋前馬，昆閻、滑稽後車，至於襄城之野，七聖皆迷，无所問塗。適遇牧馬童子，問塗焉，曰：‘若知具茨之山乎？’曰：‘然。’‘若知大隗之所存乎？’曰：‘然。’黃帝曰：‘異哉小童！非徒知具茨之山，又知大隗之所存。請問爲天下。’小童曰：‘夫爲天下者，亦若此而已矣，又奚事焉！予少而自遊於六合之內，予適有瞽病，有長者教予曰：‘若乘日之車而遊於襄城之野。’今予病少痊，予又且復遊於六合之外。夫爲天下亦若此而已。予又奚事焉！’黃帝曰：‘夫爲天下者，則誠非吾子之事。雖然，請問爲天下。’小童辭。黃帝又問，小童曰：‘夫爲天下者，亦奚以異乎牧馬者哉！亦去其害馬者而已矣！’黃帝再拜稽首，稱天師而退。”(『莊子·徐无鬼』)

55) 東漢의 劉晨과 阮肇가 천태산에서 약초를 캐다 두 여자를 만나 반년을 머물다 집에 돌아왔는데 七世가 지난 것을 알고는 두 여자가 선녀임을 깨달았다고 한

신도 복령사에 이르니 번뇌가 눈 녹듯이 사라짐을 말한 것이다. 道家와 연관된 고사를 부정적으로 이용하고 佛家の 논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찰이라는 공간에 합당한 의경을 만들어낸 솜씨가 교묘하다.⁵⁶⁾

‘神助’라는 평가를 받은 頸聯⁵⁷⁾은 24세에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老熟한 면모를 보여 短命句로도 유명하다. 복령사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경물에 비겨 묘사한 부분으로 出句는 구름과 새와의 因緣을 가리킨다. 비가 오려는 것을 눈치 챈 새들이 서로를 부르며 등지로 돌아가려 한다는 뜻이다. 對句는 늙은 나무와 바람 사이의 無緣을 의미한다. 비를 예고하는 바람이 불어 닥치건만 늙은 나무는 무정하게도 요동도 하지 않는다. 늙은 나무라 꽃과 잎이 없기에 바람이 부나 불지 않으나 차이가 없음을 이처럼 묘사한 것이다.

박은이 선택한 ‘無情’이라는 시어는 앞서 말한 복령사의 관음보살상과도 연관된다. 불가에서는 중생을 ‘有情’이라 하고 관음보살을 ‘覺有情’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중생은 인연과 정에 얽매인 존재이며 관음은 부처의 깨달음을 얻었으나 중생을 계도하고자 극락에 오르지 않은 존재이다. 따라서 늙은 나무는 각오한 존재를 의미하며 바람은 속세의 풍파를 의미한다.

인연을 맺고자 찾아온 바람에게 늙은 나무는 무정하기만 하다. 슬퍼하는 것은 바람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 바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늙은 나무이다. 관세음보살이 ‘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아끼는 것처럼 늙은 나무는 속세의 인연에 연연해하는 바람을 슬퍼하는 것이다. 단순한 경물묘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불가의 깨달음을 함축하고 있기에 ‘神

다. 『太平御覽』(권41)에서 南朝 宋 劉義慶의 『幽明錄』을 인용한 데 보이며 『神仙記』를 인용한 『太平廣記』(권61)에도 보인다.

56) 이 부분을 험한 길을 고생하며 올라보니 복령사의 경치가 매우 좋다는 뜻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수련의 의경이 이미 절에 도착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함련은 절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57)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경련에 “有神助”라는 評을 달았고 미련에 “拔俗”이라는 批를 달았다.

助’를 얻었다는 평가가 虛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이 이르면 마음이 靈敏해지고 화가 이르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말⁵⁸⁾이 있듯이 합련과 경련 역시 ‘福’과 ‘靈’의 결합으로 읽을 수 있다. 합련은 복을 빌기 좋은 복령사의 특징을 담은 것이고 경련은 복을 빌어 얻게 된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因緣과 無緣에 대한 불가의 깨달음을 징험한 결과가 미련이다. 인연으로 맺어진 세상만사는 한바탕 웃음에 부칠 것도 못되며 만고에 불변한다는 청산 또한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不變과 不動의 상징인 청산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박은은 이러한 통념을 부정하고 불가의 논리에 따라 청산의 상징을 재해석함으로써 사찰이라는 시적 대상의 특징을 적절히 포착해내었던 것이다.

한편 미련에 보이는 無常의 심상은 복령사가 개성에 있는 절이라는 점과도 상관된다. 송악산 서쪽 기슭에 있었던 복령사는 고려시대 숙종 이후부터 왕실의 보호를 받았던 사찰이다. 前朝의 수도였던 개성은 홍명성쇠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미련은 인간사뿐만 아니라 만물 모두가 허망하다는 깨달음을 표현한 구절인 셈이다. 나라는 사라지고 없지만 복령사는 여전히 남아 佛家の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합련과 경련에 보이는 ‘福至心靈’을 징험한 결과가 곧 미련의 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박은의 <복령사>는 ‘福’과 ‘靈’의 뜻, 사찰이라는 공간의 의미, 그리고 ‘복령사’라는 역사적 공간의 의미 등을 결부하여 작품 전반의 시어, 의경, 주제, 미감을 조직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구절의 의미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조직과 단련을 강조하였던 박은 시의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 적절하게 전고를 활용한 것과 경물 속에 상징을 담아낸 것 또한 이 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58) 清 翟灝의 『通俗編·祝誦』에 “史炤『通鑿疏』引諺：‘福至心靈，禍來神昧。’”가 보인다.

V. 결론

본고는 널리 알려진 한시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여 제목이 제공하는 단서와 정보를 이용하여 본문을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목은 창작의 시간적·공간적 배경, 동기, 상황,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본문 해석에 큰 도움을 준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과 연관된 한시의 경우 제목에서 결정적인 해석의 정보와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제목에 유의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제목은 본문의 사전적·문법적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어와 의경이 선택되고 배치되는 이유와 방식을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는 주제와 제목이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하거니와 본문을 해석할 때 생기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제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목을 통해 본문 해석의 결정적 단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제목과 본문이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되는 것도 아니므로 제목과 본문 사이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시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수 한 수를 꼼꼼히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字句의 사전적인 의미만을 밝히는 것을 한시 연구의 본령이라 할 수 없다. 문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신비평’처럼 텍스트 자체의 가치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요소를 부정하는 시각 또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한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잘못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창작의 상황, 동기 등의 정보를 무시하게 되면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물론 문면의 의미까지도 왜곡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 연구에 있어서 제목의 정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시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 이외의 요소들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고는 그 가운데 제목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 역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해석 근거의 충분함과 합리성이다. 제목을 통해 때로는 해석의 근거를, 때로는 해석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본고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權 鞏, 『石洲集』(한국문집총간 75), 한국고전번역원.
- 朴 聞, 『挹翠軒遺稿』(한국문집총간 21), 한국고전번역원.
- 李 達, 『蓀谷詩集』(한국문집총간 61), 한국고전번역원.
- 李書九 외, 『韓客巾衍集』(柳琴 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承召, 『三灘先生集』(한국문집총간 11), 한국고전번역원.
- 李安訥, 『東岳集』(한국문집총간 78), 한국고전번역원.
- 鄭以吾, 『郊隱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趙緯韓, 『玄谷集』(한국문집총간 73), 한국고전번역원.
- 黃廷彧, 『芝川集』(한국문집총간 41), 한국고전번역원.
- 姜哲中 외, 『허균이 가려 뽑은 조선시대의 한시』, 문헌과해석사, 1999.
- 金相洪, 『漢詩의 理論』, 高麗大學校 出版部, 1997.
- 閔丙秀, 『韓國漢詩代表作評說』, 태학사, 2000.
- 成範重, 「한시 연구와 한시 번역」,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2003.
- 송준호, 「해석과 번역을 위한 몇 가지 제요」, 『韓國名家漢詩選』, 문헌과
해석사, 1991.
-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 尹昇漢, <女流詩人 蘭雪軒>, 『白民』 제2권 4호(통권 제5호), 白民文化社,
1946.10.
- 이종건,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社, 2001.
-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太學社, 1995.
- 李鍾默,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藏書閣』 7,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2002.8.

<Abstract>

The Importance of Titles on Interpreting the Sino-Korean Poetry

Gu, Bon-Hyun

If we are translating Sino-Korean poetry into Korean language, first of all we must comprehend the titles correctly. Because we can know not only subject matters of poem but also motives and conditions of creating a poem through the titles.

There are no objection that Sino-Korean poetry are literary works. But we must not forget Sino-Korean poetry were useful method of social intercourses. A lot of Sino-Korean poetry had been written under special situations, and in such cases the informations that we can get from titles will be key points to interpret the text.

Sometimes the titles gives us unexpected informations. We can know "when" and "where" the poem was created through the titles. Moreover we can get important informations such as theme and skills of poem. If we are lucky, we can understand the poet's intention through the titles. What is more we can comprehend why he created such poetic dictions and how he arranged the poetical ideas. That is why we must analysing the titles of poetry very carefully.

Key Words : Sino-Korean Poetry, Titles, Interpretation, Translation, Informations, Poetic Dictions, Poetical Ideas